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년 2월 17일(수) 14:00
배포일시	2021년 2월 16일(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이진국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86, ljk@kdi.re.kr)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 시: 2월 17일(수) 13:30~18: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 KDI는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
 - KDI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
 -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실행방안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

- 컨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50주년을 맞은 KDI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며, 발표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는 선진국이 아닌 선도국이 열어야 하고, 선도국은 지구적 정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둔 나라이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라며 KDI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KDI 50년의 경륜이 문명사적 대전환을 선도하는 시대의 횃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KDI 개원 5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 모형은 강력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은 OECD가 추구하는 핵심목표인 만큼 이러한 가치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세션 1. 산업·시장 부문]에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의 산업 발전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
 - 산업정책의 경우 신산업을 위한 시장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에 주력,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헬스케어산업의 네거티브 규제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정비, 전문자격시장 진입 완화 등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
 -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 [세션 2. 노동·교육 분야]에서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이뤄야 함을 제시
 -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

-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려면 교육정책의 외연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성인기 교육·훈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교육정책의 중장기 지향점을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뒤야 한다고 강조

- [세션 3. 공공·재정 분야]에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지속적 혁신을 지원하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안
 -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절대 비중을 늘리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등 전문역량을 함양한 인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재구성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민간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재설계해야 함을 피력

-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복지 혁신과 복지개혁을 통해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구현을 주장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가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람과 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

-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뒀다”고 강조
 -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

□ 이번 컨퍼런스는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국제행사로 이후에도 KDI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정표 KDI 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총 참석자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첨부 3. 연사 프로필
-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3:30~13:50	<p>개회식</p> <p>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p> <p>축 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p> <p>축 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p> <p>축 사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p>
13:50~14:50	<p>세 션 1. 산업·시장 부문</p> <p>사 회 김주훈 KDI 연구위원</p> <p>발 표 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KDI 연구위원</p> <p>발 표 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KDI 연구위원</p> <p>지정토론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p>
14:50~15:10	휴 식
15:10~16:10	<p>세 션 2. 노동·교육 부문</p> <p>사 회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p> <p>발 표 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KDI 연구위원</p> <p>발 표 2.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p> <p>지정토론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p>
16:10~16:25	휴 식
16:25~17:25	<p>세 션 3. 공공·재정 부문</p> <p>사 회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p> <p>발 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p> <p>발 표 2.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KDI 연구위원</p> <p>지정토론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p>

시 간	프로그램
17:25~17:40	휴 식
17:40~17:50	기조연설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올릭 누센 OECD 사무차장
17:50~18:40	OECD 특별세션 사 회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실장 발 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 자유토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발표 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KDI 연구위원

-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장기적 구조 변화를 뒷받침해야 함.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 시장창출, R&D 촉진,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창의적 인력 양성 정책에 주력
 - 신산업에 대한 시장창출 정책을 적극 집행하고, 핵심기술의 응용 및 상용화, 서비스 관련 R&D 투자가 촉진되도록 지원
 -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을 기업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노동정책 필요
-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전문자격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시장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산업간 융합을 주도
 -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자격시장 정책은 기존 사업자의 지대를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

발표 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KDI 연구위원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함.
 - 현재의 소유경영에 전문경영의 장점들을 접목해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마땅히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에 대한 견제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뒀야 할 것
 -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과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함.
 -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총수일가의 지분을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범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불공정거래행위 해소와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
 - 신고인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증액, 업계실태조사 강화와 더불어 공정위 직권조사 기능을 확충하여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함.

세션 2. 노동·교육 부문

발표 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KDI 연구위원

- 미래 노동시장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경제적 산출물이 공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 간 상호노력을 바탕으로 인사관리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함.
 - 연간 근로시간 및 장시간 근로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추구
 - 사용자는 정규 임금을 높여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요를 억제하고, 노동자는 생산성을 높여 정규 임금 중심의 임금체계를 뒷받침하며, 정부는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필요
- 노동시장의 임금은 나이·성별·인종 차별 없이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직무가치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함.
 -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자기계발 유인을 높이고 입직 시 불필요한 스펙쌓기 같은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함.
-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법질서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야 함.
 - 노동자와 사용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노력해야 함.
 -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모두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환경, 복지, 비정규직 이슈 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발표 2.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미래의 평생학습자 양성으로 설정하고, 평생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함.
 -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루도록 정부가 지원·관리하는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함.
 -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동기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
-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학령기 정규교육에서 성인기 비정규교육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
 - 학령기 대학교육의 수급 불일치를 완화해 대학의 교육자원 중 일부가 성인기 교육으로 재배치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것을 고려
- 성인기 교육은 노동수요 변화에 긴밀히 조응하는 민간 교육·훈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민간 교육·훈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발적 수요가 있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의 조성임.
 -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 및 교육·훈련 부문의 정보를 상세히 수집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해야 함.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쉬운 저숙련 노동자 일수록 교육·훈련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발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 미래의 정부는 정책수행 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함.
 - 똑똑한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사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공동체의식 제고·양극화 해소 등을 이뤄내야 함.
- 또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밀착형 전문성·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공공 부문 인력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해 해당 분야로 재배치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일몰시키고 규제체계를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는 동시에 징벌적 배상 등 사후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부 규제의 수용도를 높여야 함.
- 디지털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모바일,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 민관 협업 등으로 부처 간 업무를 연계·통합하고 단절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

발표 2.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KDI 연구위원

-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해 복지개혁과 복지혁신을 이룸으로써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
 -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기본적 수요에는 선별적·선제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며 이질적 수요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다층적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함.
- 특히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 마련이 긴요함. 사회보호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
- 정부는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을 육성·지원하고 민간·공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행정비용을 낮춰야 함.
 - 동시에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이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
 - 사회적으로 감당가능한 총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

OECD 특별세션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

-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 기후변화·환경파괴, 디지털화·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같은 도전과제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불평등과 취약성이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고 청년일자리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두어야 함. 특히 취약계층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한국의 노동시장이 포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 격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낮은 이동성,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편중,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소외·취약 계층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
-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성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시스템을 원활하게 탐색하며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설계
 -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재평가·간소화하고,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설계할 필요

❖ 첨부 3. 연사 프로필

개회식

최정표 KDI 원장



- 現 KDI 원장
- 前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축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現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前 국무조정실장
- 前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前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축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現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現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前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축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 現 OECD 사무총장
- 前 멕시코 재무부 장관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김주훈 KDI 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現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 前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 前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 前 KDI 부원장,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 표 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KDI 연구위원



- 現 KDI 발간위원회 위원장
- 現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 前 KDI 연구조정실장

발 표 2.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

이진국 KDI 연구위원



- 現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現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Managing Editor
- 現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위원
- 現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위원
- 現 한국공정거래학회 이사

지정토론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 現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KDI 연구위원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 現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前 롯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션 2. 노동·교육 부문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現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前 KDI 선임연구위원
- 前 OECD 선임정책분석관
- 前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발 표 1.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우람 KDI 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발 표 2. 평생학습사회 구현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KDI 연구위원

지정토론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



- 現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KDI 연구위원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現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前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 前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 現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 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前 고용노동부 차관
- 前 국무조정실 2차장
- 前 KDI 연구본부장

발 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 現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現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 평가위원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現 공학한림원 회원
- 前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발 표 2.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이태석 KDI 연구위원



- 現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現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위원
- 前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 前 미 오클랜드대학교 조교수

지정토론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



-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연구소장
- 現 바른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부집행위원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 정책연구심사위원
- 前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現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前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 前 KDI 주임연구원

기조연설

올릭 누센 OECD 사무차장



- 現 OECD 사무차장
- 前 OECD 글로벌전략그룹장
- 前 덴마크 외교부 상임국무장관
- 前 OECD 및 유네스코 대사

OECD 특별세션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실장



- 現 KDI 글로벌경제실장
- 前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KDI 연구위원

발 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



- 現 OECD WISE(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Equal Opportunity)센터 소장
- 前 OECD 포용적성장 부문장
- 前 OECD 사무총장 수석 고문
- 前 OECD 통계국 웰빙 부문 부국장
- 前 프랑스 사회부 컨설턴트

자유토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前 KDI 글로벌경제실장
- 前 OECD 선임애널리스트
-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

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現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前 OECD 경제총국 동아시아, 한국, 일본 담당관
- 前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
- 前 일본경제연구소 선임이코노미스트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50** Anniversary KDI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2021. 02. 17. (수) 13:30~18:40

[▶ YouTube KDI 채널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13:30~13:50	개회식
13:50~14:50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15:10~16:10	[세션 2] 노동/교육 부문
16:25~17:25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17:40~17:50	기조연설(OECD)
17:50~18:40	OECD 특별세션

문의: 운영사무국 T. 070-4216-3334